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 신체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비교 (제2보) - 팬츠와 스커트를 중심으로 -

박숙현[†] · 권미정* · 이경림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밀양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Comparison of the Difference between Body Perception and Satisfaction by Consumers' Pants and Skirt Preference and Wearing Style

Sook-Hyun Park[†], Mi-Jeong Kwon* and Kyung-Lim Lee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soong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Miryang National University*

(2003. 11. 6. 접수 : 2004. 8. 6.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comparison of preference style and wearing style of pants and skirt by body perception and satisfaction. This research was done by a survey method. Descriptive Statistics, Coefficients MANOVA, Two-Way ANOVA, *t*-test and Duncan's 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subjects with the highest dissatisfaction about waist girth prefer high waist pants. The subjects with longer waist wear high waist pants. The subjects with wider hips wear narrow down pants. The subjects with the thickest thighs prefer narrow pants but wear narrow down pants. The subjects with the highest dissatisfaction about calf thickness prefer narrow pants but wear wide pants. The subjects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about leg length prefer and wear calf length pants. The subjects with the thinnest calves prefer and wear tight pants. 2) The subjects with the thickest thighs prefer straight skirt but wear narrow down skirt. The subjects with the highest dissatisfaction about thigh thickness wear A-line skirt.

Key words: body perception(신체인지도), body satisfaction(신체만족도), preference style(선호스타일)
wearing style(착용스타일).

I. 서 론

의복은 신체보호나 장식 등의 목적으로 착용되기도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목적 외에도 신체 불만족 부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의복 착용 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의복 착용을 원하지만, 자신의 체형 부위별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닌 자기 체형의 단점을 커버하는 스타일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여성들은 자신의 체형과 개성

[†] 교신저자 E-mail : shpark@star.ks.ac.kr

에 맞는 의복을 착용하여 자기 신체에 대한 불만족 부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현대 여성들은 키가 크고 사지가 길며 날씬한 신체를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이상미에 근접하지 못할 경우 대다수의 여성들은 자기 신체와 이상적 신체를 비교함으로써 자기 신체에 불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수의 선행연구(정재은, 1993; 이영주, 박옥련, 이정옥, 1997; 이경림, 박숙현, 2004) 결과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에서 더 크거나 굵다고 인식하여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여성들이 많았으며, 하반신 대부분의 부위에서 대체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급격히 요구되면서 가성복 정장을 착용하는 여성들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업무에 효율적인 정장 상의 및 하의에 대해 그 기능성 외에도 신체적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의복설계 및 스타일 개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제 1보에서는 정장 착용 경험이 많아 체형에 적합한 디자인 선별력이나 착용감 등에 대해 잘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사회활동이 활발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인지도와 만족도간의 차이 및 상관성을 알아보고, 정장 재킷 부위별로 어떤 스타일의 재킷을 선호하고 착용하는지에 따라 그 부위에 대한 신체 인지도와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대부분 들레 항목에서 크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였으며,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에서 더 크거나 굵다고 인식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재킷을 착용할 때 체형,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와 상관없이 선호하는 재킷을 실제 착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자신의 신체 불만족 부위를 보완할 수 있는 재킷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 제 1보의 연구결과가 정장 재

킷에 한정되었고,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 성인 여성들이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에 대해 더 불만족하므로, 하반신 결점 부위를 커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의류 개발에 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제 1보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20대, 30대 여성들의 하반신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간의 차이 및 상관성을 알아보고, 정장 팬츠 및 스커트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자기 체형에 대한 인지나 만족 정도에 따라 어떤 스타일의 팬츠 및 스커트를 선호·착용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일반 소비자 하반신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장 팬츠 및 스커트 디자인과 패턴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하반신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신체인지도(body perception)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인식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Kefgen과 Touchie-Specht²⁾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신체적 영상을 가진 사람은 소수이다. 신체만족도(body satisfaction)는 개인의 자아존중, 자기 개념, 자기이미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Secord와 Jourard³⁾에 의하면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해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Horn과 Gurel⁴⁾은 신체만족도를 신체의 전체나 각 부분에 대해 개인이 만족, 불만족하는 느낌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인종과 성에 따라서 다르고, 의복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자기 신체에 대한 태도를 질문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인여성의 하반신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 정재은⁵⁾에 의하면 20대 여성들

1) 이경림, 박숙현,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비교(제1보): 재킷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2권 1호 (2004), pp. 151-167.

2) M. Kefgen and P. Touchie-Specht,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4th ed. (New York: Macmillan, 1986), pp. 167-180.

3) R. Secord and S. Jourard,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17 (1953), pp. 343-347.

4) M. J. Horn and L. M. Gurel,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서울: 까치, 1994).

5) 정재은,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의 신체만족도는 신체 부위별 크기에 대한 인식이 각 신체 부위에 대한 실제 계측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에 대해 더욱 많은 신체를 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는 신체의 길이에 대한 인식도보다 둘레에 대한 인식도와 더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키가 크고 가볍고 둘레가 작은 것에 더 만족한다고 하였다.

이영주 외 2인⁶⁾의 20대 여성 하반신 부위별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들은 대퇴둘레, 종아리둘레, 엉덩이둘레, 배둘레, 허리둘레, 발목둘레가 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밑위길이는 길고 몸무게는 무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만족도는 하반신 모든 부위에서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대퇴둘레, 엉덩이둘레, 종아리둘레에 불만족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영주⁷⁾의 중년여성 하반신 형태에 따른 인식도와 슬랙스 입체재단 연구결과,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여성들은 대부분 키가 크고 다리가 길며, 둘레가 가는 하반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신 부위 중 특히 20대는 대퇴둘레를 가장 굵게 인식하였으며, 30대, 40대, 50대는 배둘레를 가장 굵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하반신 부위에 대한 만족 여부에 있어서는 20대가 가장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반신 부위에 대한 만족도는 실제 계측치보다 자신의 인식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특히 20대와 30대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⁸⁾의 슬랙스 제작을 위한 성인여성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 분석 연구결과,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는 허리둘레, 배둘레, 체중에서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만족도는 30대에 비해 40대에

서 높았는데, 이것은 40대 이후의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연령대의 여성을 비교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20대와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양숙, 추태귀⁹⁾의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체중 및 하반신 부위로 허리둘레, 허벅지부위, 엉덩이부위 등을 실제 계측치보다 더 크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또한 남운자, 이승희¹⁰⁾는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비교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넓적다리과 엉덩이둘레 등 하반신의 둘레 부위에 불만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하반신에 대한 신체 인지 및 만족에 관한 선행 연구는 20대 여대생 또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구성학적 측면에서 실제 계측치와의 비교 연구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다방면에서 사회활동에 가장 폭넓게 종사하고 있는 20대, 30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하반신을 직접 계측하지 않고, 하반신 각 부위별 인지 및 만족 정도를 주관적인 개인의 느낌에 따라 5점 Likert 척도로 비교 조사하여, 그 상관성을 밝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30대 여성의 하반신 각 부위별 인지도와 만족도간의 상관성에 대해 비교 분석 후 정장 팬츠와 스커트 아이템을 선호 및 착용시 인지도와 만족도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른 의복 선호 및 착용스타일

성인여성의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른 하의 선호 및 착용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Kaiser¹¹⁾는 신체만족도가 의복스타일의 선택과 의복에 대한

6) 이영주, 박옥련, 이정옥, "슬랙스 제작을 위한 20대 여성의 하반신 형태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 분석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2호 (1997), pp. 368-382.

7) 이영주, "중년기 여성의 하반신 형태에 따른 인식도와 슬랙스 입체재단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8) 이영주, "슬랙스 제작을 위한 성인 여성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 분석: 30세에서 49세까지", *한국의류학회지* 22권 1호 (1998), pp. 127-138.

9) 구양숙, 추태귀,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권 5호 (1996), pp. 29-39.

10) 남운자, 이승희,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권 4호 (2001), pp. 764-772.

11) S.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1985), pp. 157-167.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황진숙, 나영주¹²⁾도 남자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이미지 선호 연구에서 신체에 대한 만족은 의복스타일 선호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영륜, 강혜원¹³⁾의 중년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의복 행동간 상관 연구에서 중년여성은 평균 정도의 신체만족도를 보였고, 의복이 비교적 몸에 잘 맞지 않는 부위로는 밑위길이, 허리부위, 엉덩이부위로 밝혀져 주로 하반신 의복에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유행하는 의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황진숙¹⁴⁾의 여대생의 신체만족도와 기성복에 대한 만족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몸무게와 관련된 부위에서 불만족하였으며, 대체로 의복의 허벅지부위, 엉덩이부위, 허리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바지 길이에 대한 만족도는 하반신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영주, 임숙자¹⁵⁾의 연구에 따르면 여대생들은 주로 하반신에 불만족하였는데, 특히 엉덩이부위, 허벅지부위, 종아리부위의 체중조절을 원하였다. 또한 각 부위별 체중 비조절 집단과 체중 조절 집단의 의복만족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엉덩이부위의 체중조절을 원하는 집단은 의복의 엉덩이부위와 가랑이부위에 더 불만족하였고, 허벅지부위의 체중감량을 원하는 집단은 의복 착용 시 의복의 허벅지부위, 가랑이부위, 스커트길이에 더 불만족하였다.

박우미, 위은하¹⁶⁾의 연구를 살펴보면 중년여성의 신체부위별 기성복 만족도의 경우 상의(제킷, 블라우

스)에 비해 하의(스커트, 팬츠)의 만족도가 더 낮았으며, 특히 상의의 경우 허리부위와 엉덩이부위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스커트와 팬츠의 경우 거의 모든 부위에서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팬츠의 배둘레, 엉덩이둘레와 넓적다리둘레 부위에서 다른 부위보다 기성복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팬츠의 경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특히 엉덩이 돌출모양의 경우는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고, 배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 넓적다리둘레 등의 만족도도 다른 부위에 비해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추태귀¹⁷⁾의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 추구 효용 연구결과 대구 및 경북지역 여대생들의 신체만족도는 다소 불만족한 편이며, 특히 하반신과 체중에 대하여 불만족하였다. 또한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의 성적 매력, 개성, 실용성을 더 추구하였으며, 신체만족도가 낮으면 의복을 신체적 결점 보완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은하, 박우미¹⁸⁾의 중년여성 신체부위 인지유형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착용의복스타일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신체부위 인지유형은 전체 비만 인지유형, 팔/다리 비만 인지유형, 전체 수척 인지유형의 3가지로 분류되었고, 중년여성들은 신체부위 인지유형과 관계없이 어깨가 넓어 보이는 디자인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어깨가 좁아보이는 상의나 하반신이 덮이는 발목길이의 스커트를 더 자주 착용하였다. 또한 이수지, 이인자¹⁹⁾는 성인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스타일 선호 연구에서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즐

12) 황진숙, 나영주, "남자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이미지 선호의 관계연구", 복식 49권 (1999), pp. 65-72.

13) 이영륜, 강혜원,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권 2호 (1982), pp. 17-24.

14) 황진숙, "신체만족도와 기성복에 대한 만족의 상관관계연구", 복식 34권 (1997), pp. 183-193.

15) 이영주, 임숙자, "체중조절 행동과 의복의 맞음성 만족도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권 1호 (2001), pp. 13-24.

16) 박우미, 위은하, "중년여성의 신체 형태 특징 유형별 기성복 만족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권 3호 (2003), pp. 235-243.

17) 추태귀, "신체만족도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 추구 효용",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권 4호 (2002), pp. 376-382.

18) 위은하, 박우미, "중년여성의 신체부위 인지유형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착용의복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27권 9/10호 (2002), pp. 1112-1123.

19) 이수지, 이인자, "성인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복식 30권 (1996), pp. 59-68.

겨 읽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른 하의 선호 및 착용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특정 하반신 부위에 대한 불만족 정도에 따른 의복 부위별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많고, 본 연구와 같이 하의 아이템 중 정장 팬츠 및 스커트 스타일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의를 정장 팬츠와 스커트로 한정하고 팬츠와 스커트의 부위별 선호스타일 및 착용스타일에 따른 성인여성의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 성인여성의 하반신 부위별 인지도와 만족도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 성인여성의 하반신 부위별 인지

도와 만족도간에 상관성이 있는가?

- 연구문제 3 : 정장 팬츠와 스커트 각 부위별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의 선택에 따른 성인여성의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간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조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표 1>과 같다.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의 차이 및 상관성 검증을 위한 조사 분항은 부위별 10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정장 팬츠 및 스커트는 다른 종류의 하의에 비해 하반신에 따른 맞춤정도(fit)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아이템이며, 의복부위별 팬츠는 7개 항목, 스커트는 4개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팬츠 및 스커트에 대한 조사방법은 조사시기의 유행과는 상관없이 의복 각 부위별 선호와 착용에 디자인이 통제된 동일한 스타일보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형태 2~4개를 선정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팬츠 및 스커트 스타일과 실제 착용

<표 1> 조사항목 및 평가방법

조사내용	항목 수	조사항목 및 평가방법	
하반신 인지도	10항목	Likert 5점 척도 (1=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아주 그렇다) 항목 : 허리가 굵다 / 허리가 길다 / 아랫배가 나왔다 / 힙이 넓다 / 힙이 나왔다 밑위가 길다 / 다리가 길다 / 허벅지가 굵다 / 종아리가 굵다 / 발목이 굵다	
하반신 만족도	10항목	Likert 5점 척도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5=아주 만족한다) 항목 : 허리둘레 / 허리길이 / 아랫배 나온 정도 / 힙너비 / 힙 나온 정도 발위길이 / 다리길이 / 허벅지굵기 / 종아리굵기 / 발목굵기	
선호 · 착용 스타일	팬츠 7항목	① 허리위치	High waist, normal waist, low waist
		② 헐여유분	Tight, fit, loose
		③ 팬츠통	Narrow, normal, wide, narrow down
		④ 팬츠길이	7부, long
		⑤ 팬츠형태	Tight pants, bell bottoms, straight pants
		⑥ 뒷주머니 유무	주머니 있는 것, 주머니 없는 것
		⑦ 앞주름 유무	앞주름 있는 것, 앞주름 없는 것
	스커트 4항목	① 허리위치	High waist, normal waist, low waist
		② 헐여유분	Tight, fit, loose
		③ 스커트형태	A-line skirt, straight skirt, narrow down skirt, gather skirt
		④ 스커트길이	Mini, chanel line, midi, long

하는 스타일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 시내 20대 후반에서 30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50부의 예비설문 실시 후 문제가 되는 응답자의 최종 학력 측정 문항과 의복스타일 선정 및 스커트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응답방법 등에 대해 수정·보완을 거쳐 본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2003년 3월 17일부터 2003년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311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0.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간 평균차이 및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장 팬츠 및 스커트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간 차이 비교를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 및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분석으로 Duncan's test 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하반신 각 부위별 인지도와 만족도간 평균 비교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간 *t*-test 결과(표 2)에서, 하반신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평균이 2.60~3.34로 평균(3.00)에 가까워 하반신 각 부위에 대해 대체로 평균 정도의 인지도를 보였다. 또한 만족도는 평균이 2.37~2.83의 분포로 신체 각 부위에 대해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전반적인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허리길이와 밑위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인지도와 만족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차이를 나타낸 항목 중 발목굵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경우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즉, 발목굵기를 제외한 하반신의 둘레 및 너비 항목은 대체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길이항목 중 다리길이 항목 역시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따라서 20대 후반과 30대 성인여성들은 하반신의 둘레 및 너비 항목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대체로 만족도가 낮았다.

〈표 2〉 하반신 각 부위별 인지도와 만족도간의 *t*-test

하반신 인지도 항목 - 하반신 만족도 항목	인지도		만족도		<i>t</i>
	M	S.D	M	S.D	
허리가 굵다 - 허리둘레	2.98	1.09	2.57	1.04	3.84 ***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	2.76	.93	2.73	.87	.39
아랫배가 나왔다 - 아랫배 나온 정도	3.14	1.02	2.40	1.06	7.09 ***
hips이 넓다 - hips너비	3.09	1.04	2.59	.94	5.43 ***
hips이 나왔다 - hips 나온 정도	2.94	.92	2.69	.82	3.53 ***
밑위가 길다 - 밑위길이	2.88	.76	2.76	.71	1.76
다리가 길다 - 다리길이	2.82	.91	2.56	1.03	4.85 ***
허벅지가 굵다 - 허벅지굵기	3.34	1.06	2.37	1.07	9.03 ***
종아리가 굵다 - 종아리굵기	3.05	1.08	2.50	1.06	5.21 ***
발목이 굵다 - 발목굵기	2.60	1.16	2.83	1.07	-2.06 *

p*<.05, **p*<.001.

2. 하반신 각 부위별 인지도와 만족도간의 상관성

하반신 각 부위별 인지도와 만족도간 상관성 결과는 <표 3>과 같다. 하반신 각 부위의 인지도와 만족도간에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그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힙 나온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리길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가 굽다 - 허리둘레', '아랫배가 나왔다 - 아랫배 나온 정도', '허벅지가 굽다 - 허벅지굽기', '종아리가 굽다 - 종아리굽기' 및 '발목이 굽다 - 발목굽기'에서 다소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허리, 허벅지, 종아리 및 발목이 굽다고 인지할수록, 아랫배가 나왔다고 인지할수록 이와 같은 부위에 불만족하였다. 또한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 '힙이 넓다 - 힙너비', '힙이 넓다 - 허벅지굽기' 및 '밀위가 길다 - 밀위길이'에서는 낮은 상관성이 나타나, 허리가 길다고 인지할수록 허리길이에 불만족하였고, 힙이 넓다고 인지할수록 힙너비 및 허벅지굽기에 불만족하였으며, 밀위가 길다고 인지할수록 밀위길이에 불만족하였다. 반면 '다리가 길다 - 다리길이'에서는 정적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리가 길다고 인지할수록 다리길이에 만족하였다. 따라서 다리길이, 밀위길이 및 힙 나온 정도를 제외한 하반신의 둘레 및 너비 항목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크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 한다고 할 수 있다.

3. 팬츠와 스커트에 대한 선호 및 착용스타일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팬츠와 스커트에 대한 선호 및 착용스타일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MANOVA를 실시하였고, 그 후 구체적으로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 중 어느 것이 팬츠 및 스커트 선호와 착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wo-Way ANOVA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선호 및 착용, 선호와 착용의 상호 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또한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선호 및 착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사후 분석으로 Duncan's test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나 선호 및 착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선호와 착용의

<표 3> 하반신 각 부위별 인지도와 만족도간의 상관성

인 지 도	만족도									
	허리 둘레	허리 길이	아랫배 나온정도	힙 너비	힙 나온정도	밀위 길이	다리 길이	허벅지 굽기	종아리 굽기	발목 굽기
1	-.57 ***	-.19 **	-.46 ***	-.27 **	-.21 **	-.25 **	.00	-.14 *	-.13 *	-.10
2	-.10	-.30 ***	-.16 **	-.13 *	.10	-.25 **	.17 **	-.12 *	-.11	-.13 *
3	-.45 ***	-.22 ***	-.35 ***	-.23 **	-.18 **	-.18 **	-.11	-.10	-.12 *	-.06
4	.24 **	-.13 *	-.22 **	-.39 ***	-.13 *	-.21 ***	-.12 *	-.34 ***	-.28 ***	-.16 **
5	-.08	-.10	-.06	-.10	-.08	-.11	-.12 *	-.15 **	-.17 **	-.01
6	-.14 *	-.18 **	-.18 **	-.17 **	-.06	-.32 ***	-.12 *	-.18 **	-.15 **	-.13 *
7	-.09	.20 **	.03	.06	-.14 *	.18 **	-.59 ***	.18 **	.15 **	.15 *
8	-.18 **	-.14 *	-.12 *	-.29 ***	-.14 *	-.21 ***	-.26 ***	-.50 ***	-.40 ***	-.25 ***
9	-.23 **	-.14 *	-.11	-.23 ***	-.15 **	-.23 ***	-.21 ***	-.42 ***	-.55 ***	-.39 ***
10	-.20 **	-.03	-.01	-.13 *	-.06	-.18 **	-.10	-.21 ***	-.30 ***	-.54 ***

*p<.05, **p<.01, ***p<.001.

인지도 : 1(허리가 굽다), 2(허리가 길다), 3(아랫배가 나왔다), 4(힙이 넓다), 5(힙이 나왔다), 6(밀위가 길다), 7(다리가 길다), 8(허벅지가 굽다), 9(종아리가 굽다), 10(발목이 굽다).

상호작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거나,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에 따라 선호와 착용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므로, 선호 및 착용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에는 통계적으로 큰 의

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그래프로 비교·분석하였다.

1) 팬츠

팬츠의 선호 및 착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표 4〉 팬츠 선호·착용 스타일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MANOVA

팬츠스타일		하반신 인지도 - 하반신 만족도	F	팬츠스타일	하반신 인지도 - 하반신 만족도	F		
허리위치	선호	아랫배가 나왔다 - 아랫배 나온 정도	3.37 *	팬츠통	선호	hips 넓다 - 힙너비	.43	
		허리가 굵다 - 허리둘레	3.53 **			허벅지가 굵다 - 허벅지굼기	1.28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	2.41 *			종아리가 굵다 - 종아리굼기	1.13	
	착용	아랫배가 나왔다 - 아랫배 나온 정도	1.02		착용	hips 넓다 - 힙너비	2.44 *	
		허리가 굵다 - 허리둘레	1.03			허벅지가 굵다 - 허벅지굼기	1.67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	3.05 *			종아리가 굵다 - 종아리굼기	1.39	
	선×착	아랫배가 나왔다 - 아랫배 나온 정도	1.65		선×착	hips 넓다 - 힙너비	1.04	
		허리가 굵다 - 허리둘레	1.52			허벅지가 굵다 - 허벅지굼기	1.30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	1.37			종아리가 굵다 - 종아리굼기	1.33	
힙역유분	선호	hips 넓다 - 힙너비	2.26	팬츠길이	선호	다리가 길다 - 다리길이	2.29	
		hips 나왔다 - 힙 나온 정도	2.32			종아리가 굵다 - 종아리굼기	.65	
		허벅지가 굵다 - 허벅지굼기	2.24			발목이 굵다 - 발목굼기	.44	
	착용	hips 넓다 - 힙너비	1.93		착용	다리가 길다 - 다리길이	.14	
		hips 나왔다 - 힙 나온 정도	3.17 *			종아리가 굵다 - 종아리굼기	.37	
		허벅지가 굵다 - 허벅지굼기	1.74			발목이 굵다 - 발목굼기	.51	
	선×착	hips 넓다 - 힙너비	1.72		선×착	다리가 길다 - 다리길이	4.44 *	
		hips 나왔다 - 힙 나온 정도	1.71			종아리가 굵다 - 종아리굼기	2.26	
		허벅지가 굵다 - 허벅지굼기	1.40			발목이 굵다 - 발목굼기	.83	
팬츠형태	선호	hips 넓다 - 힙너비	.14	팬츠형태	선×착	hips 넓다 - 힙너비	.84	
		다리가 길다 - 다리길이	1.79			다리가 길다 - 다리길이	.80	
		허벅지가 굵다 - 허벅지굼기	.15			허벅지가 굵다 - 허벅지굼기	.43	
		종아리가 굵다 - 종아리굼기	.52			종아리가 굵다 - 종아리굼기	1.97 *	
	착용	hips 넓다 - 힙너비	.31		*p<.05, **p<.01. 선×착 :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의 상호작용.			
		다리가 길다 - 다리길이	.69					
		허벅지가 굵다 - 허벅지굼기	.42					
		종아리가 굵다 - 종아리굼기	.22					

되는 하반신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OVA를 수행한 결과 <표 4>와 같이 5개 항목(허리위치, 합어유분, 팬츠통, 팬츠길이, 팬츠형태)에서 팬츠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팬츠 허리위치에 대한 선호 · 착용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팬츠허리위치에서 선호와 착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4>에서 아랫배 나온 정도, 허리둘레, 허리길이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팬츠허리위치의 선호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허리길이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서는 착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지도, 만족도 각각에 대한 Two-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살펴보면 인지도와 만족도 중 아랫배 나온 정도에 대한 인지도, 허리둘레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허리길이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팬츠 허리위치의 선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허리길이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팬츠 허리위치의 착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랫배 나온 정도에 대한 인지도, 허리둘레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허리길이에 대한 만족도가 허리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팬츠를 선호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표 5> 팬츠 허리위치 선호 · 착용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Two-Way ANOVA

하반신 부위별 항목	허리위치	선 호			착 용			
		M	S.D	F	M	S.D	F	
인 지 도	아랫배가 나왔다	High waist	3.23	1.11	6.48 **	3.30	1.22	1.63
		Normal waist	3.05	.99		3.18	1.01	
		Low waist	3.24	1.05		3.04	1.00	
	허리가 굵다	High waist	2.88	.91	4.47 *	3.10	1.17	1.74
		Normal waist	2.96	1.04		3.06	1.04	
		Low waist	3.02	1.19		2.81	1.15	
	허리가 길다	High waist	2.92	.93	.16	3.35 A	1.04	6.19 **
		Normal waist	2.79	.88		2.79 B	.85	
		Low waist	2.72	.99		2.50 B	1.01	
만 족 도	아랫배 나온 정도	High waist	2.35	1.09	2.94	2.20	1.01	1.48
		Normal waist	2.48	.98		2.43	1.02	
		Low waist	2.34	1.15		2.41	1.14	
	허리둘레	High waist	2.29	.92	4.81 **	2.40	1.10	.67
		Normal waist	2.38	1.05		2.54	.98	
		Low waist	2.50 AB	1.11		2.64	1.14	
	허리길이	High waist	2.50	.95	3.84 *	2.45 B	1.00	.54
		Normal waist	2.77	.81		2.68 AB	.78	
		Low waist	2.74	.91		2.87 A	.97	

*p<.05, **p<.01, Duncan's test 결과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집단을 문자로 표시 (A>B).

고 할 수 있으며, 허리길이에 대한 인지도는 허리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팬츠를 착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Duncan's test 결과, 아랫배 나온 정도 및 허리둘레에 대한 인지도, 허리길이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는 허리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팬츠를 선호하는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평균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반면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는 허리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팬츠를 선호하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허리길이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서는 착용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허리둘레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팬츠 허리위치 선호스타일간 차이를 살펴보면 허리둘레에 보통이하의 만족을 나타내었고, 그 중 허리둘레에 가장 불만족하면 high waist 팬츠를 선호하였다. 또한 허리길이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팬츠 허리위치 착용에서는 허리가 다소 길다고 인지하면 착용스타일로 high waist 팬츠를 선택하였고, 이에 비해 허리가 짧다고 인지하면 착용스타일로 normal waist 및 low waist 팬츠를 선택하였다.

(2) 팬츠 힙여유분에 대한 선호 · 착용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먼저 <표 4>에서 팬츠 힙여유분에 대해 살펴보면 힙 나온 정도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팬츠 힙여유분의 착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 6>에서 힙 나온 정도에 대한 인지

도, 만족도를 각각 살펴보면 인지도와 만족도 중 힙 나온 정도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팬츠 힙여유분의 선호 및 착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힙 나온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의 힙여유분이 있는 팬츠를 선호 또는 착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힙 나온 정도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선호 및 착용스타일간 Duncan's test 결과 힙여유분의 선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착용에서는 의미 있는 평균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힙 나온 정도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팬츠 힙여유분 착용스타일간 차이를 살펴보면 힙 나온 정도에 대한 만족이 평균이하였고, 그 중 힙 나온 정도에 가장 불만족하면 힙 부위에 약간 여유가 있는 (loose) 팬츠를 착용하였으며, 이에 비해 힙 나온 정도에 만족하면 힙 부위에 꼭 맞는(tight) 팬츠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팬츠통에 대한 선호 · 착용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팬츠통에 대해 <표 4>를 보면 힙너비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팬츠통의 착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7>에서 구체적으로 인지도, 만족도를 각각 살펴보면 인지도와 만족도 중 힙너비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팬츠통의 착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허벅지굵기에 대한 인지도 및 종아리굵기에

<표 6> 팬츠 힙여유분 선호 · 착용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Two-Way ANOVA

하반신 부위별 항목	힙여유분	선 호			착 용		
		M	S.D	F	M	S.D	F
인 지 도	Tight	2.95	.90	.07	2.83	.94	1.68
	Fit	2.95	.93		2.93	.94	
	Loose	2.91	.91		3.08	.81	
만 족 도	Tight	2.72	.90	4.63 **			
	Fit	2.66	.80				
	Loose	2.82	.85				

** $p < .01$, Duncan's test 결과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집단을 문자로 표시 (A>B).

〈표 7〉 팬츠통 선호·착용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Two-Way ANOVA

하반신 부위별 항목		팬츠통	선 호			착 용			선×착
			M	S.D	F	M	S.D	F	F
인 지 도	hips 넓다	Narrow	3.07	1.20	.81	2.74 B	1.12	2.72 *	1.04
		Normal	3.11	.97		3.43 A	1.06		
		Wide	3.05	1.07		3.38 A	.95		
		Narrow down	3.13	.96		3.33 A	.97		
	허벅지가 굵다	Narrow	3.26	1.22	.93	2.74 B	1.12	2.72 *	1.04
		Normal	3.37	1.03		3.43 A	1.06		
		Wide	3.41	1.02		3.38 A	.95		
		Narrow down	3.19	.91		3.33 A	.97		
	종아리가 굵다	Narrow	2.96	1.10	1.01	2.63	1.06	2.13	1.51
		Normal	3.10	1.07		3.11	1.08		
		Wide	2.98	1.11		3.16	1.09		
		Narrow down	3.06	1.18		2.94	1.06		
만 족 도	hips너비	Narrow	2.57	.98	.20	3.03 A	.71	1.24	1.69
		Normal	2.56	.92		2.51 B	.97		
		Wide	2.66	1.02		2.51 B	.93		
		Narrow down	2.75	.86		2.78 AB	.81		
	허벅지굵기	Narrow	2.31 AB	1.10	1.87	2.71	1.20	1.76	1.59
		Normal	2.40 AB	1.07		2.30	1.07		
		Wide	2.17 B	1.05		2.43	.99		
		Narrow down	2.75 A	.93		2.33	.84		
	종아리굵기	Narrow	2.59	1.19	.45	2.86	1.31	1.08	1.11 *
		Normal	2.45	1.00		2.42	1.00		
		Wide	2.46	1.12		2.59	1.14		
		Narrow down	2.75	1.00		2.50	.92		

*p<.05, **p<.01. 선×착 :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의 상호작용.
Duncan's test 결과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집단을 문자로 표시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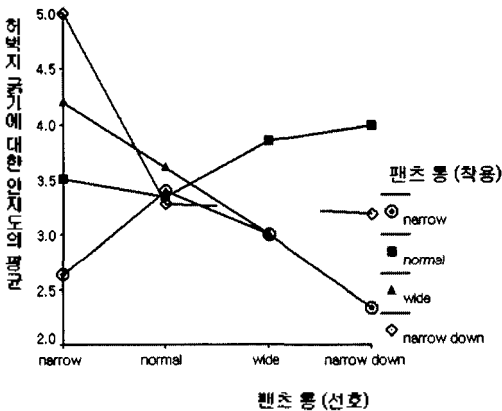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도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hips너비에 대한 인지도는 팬츠통의 착용, 허벅지굵기에 대한 인지도 및 종아리굵기에 대한 만족도는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hips너비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팬츠통 착용스타일간 차이를 살펴보면, hips가 다소 넓다고 인지한 경우 통이 좁아지는(narrow down) 팬츠를 착용하였으며, hips가 다소 좁다고 인지한 경우 통이 좁은(narrow) 팬츠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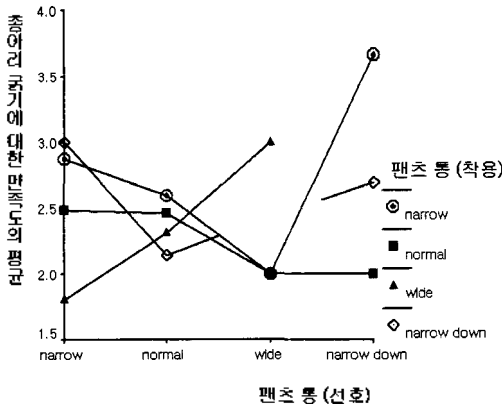
허벅지 굵기에 대한 인지도 및 종아리 굵기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팬츠통 선호와 착용스타일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그림 1, 2>와 같다.

<그림 1>에서는 허벅지 굵기에 대한 인지도의 평균이 일관성 있는 방향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여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벅지 굵기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인 경우 통이 좁은 팬츠를 착용하였고, 그 중 허벅지가 가장 가늘다고 인지하면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선호하지만 통이 좁은 팬츠를 착용하였다. 허벅지 굵기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감소하다가



<그림 1> 팬츠통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 따른 허벅지 굵기에 대한 인지도 차이.



<그림 2> 팬츠통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 따른 종아리 굵기에 대한 만족도 차이.

다시 증가한 경우 통이 보통인 팬츠를 착용하였고, 그 중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선호하지만 통이 보통인(normal) 팬츠를 착용하였다. 허벅지 굵기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 감소 경향을 나타낸 경우 통이 넓은 팬츠를 착용하였고, 그 중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통이 좁은 팬츠를 선호하지만 통이 넓은(wide) 팬츠를 착용하였다. 허벅지 굵기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약간의 감소 경향을 나타낸 경우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착용하였고, 그 중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통이 좁은 팬츠를 선호하지만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착용하였다.

통이 좁은 팬츠를 선호하는 경우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통이 좁은 팬츠를 선호하지만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착용하였고, 허벅지가 가장 가늘다고 인지하면 통이 좁은 팬츠를 선호·착용하였다. 통이 보통인 팬츠를 선호하는 경우 허벅지 굵기에 대한 인지도가 보통 이상이었고, 그 중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통이 보통인 팬츠를 선호하지만 다른 팬츠에 비해 통이 넓은 팬츠를 착용하였다. 통이 넓은 팬츠를 선호하는 경우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통이 넓은 팬츠를 선호하지만 통이 보통인 팬츠를 착용하였다.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선호하는 경우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선호하지만 통이 보통인 팬츠를 착용하였고, 허벅지가 가장 가늘다고 인지하면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선호하지만 통이 좁은 팬츠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허벅지 굵기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팬츠통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는,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통이 좁은 팬츠를 선호하지만 착용스타일로는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선택하였고, 허벅지가 가장 가늘다고 인지하면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선호하지만 착용스타일로는 통이 넓은 팬츠를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종아리 굵기에 대한 만족도가 팬츠통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아리 굵기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다가 다시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경우 통이 좁은 팬츠를 착용하였고, 그 중 종아리 굵기에 가장 만족하면 통이 좁아지

는 팬츠를 선호하지만 통이 좁은 팬츠를 착용하였으며, 종아리굵기에 가장 불만족하면 통이 넓은 팬츠를 선호하지만 통이 좁은 팬츠를 착용하였다. 종아리굵기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 경우 통이 넓은 팬츠를 착용하였고, 그 중 종아리굵기에 가장 불만족하면 통이 좁은 팬츠를 선호하지만 통이 넓은 팬츠를 착용하였다. 종아리굵기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다가 다소 증가한 경우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착용하였고, 그 중 종아리굵기에 가장 불만족하면 통이 보통인 팬츠를 선호하지만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착용하였다.

통이 좁은 팬츠를 선호하는 경우 종아리굵기에 평균이하의 만족을 나타내었고, 그 중 종아리굵기에 가장 불만족하면 통이 좁은 팬츠를 선호하지만 통이 넓은 팬츠를 착용하였다. 통이 보통인 팬츠를 선호하는 경우 역시 종아리굵기에 평균이하의 만족을 나타내었고, 그 중 종아리굵기에 가장 불만족하면 통이 보통인 팬츠를 선호하지만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착용하였다. 통이 넓은 팬츠를 선호하는 경우에도 종아리굵기에 평균이하로 만족하였고, 그 중 종아리굵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으면 통이 넓은 팬츠를 선호·착용하였다.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선호하는 경우 종아리굵기에 만족하면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선호하지만 통이 좁은 팬츠를 착용하였다.

따라서 종아리굵기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팬츠통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는, 종아리굵기에 가장 불만족하면 통이 좁은 팬츠를 선호하지만 착용스타일로는 통이 넓은 팬츠를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종아리굵기에 가장 만족하면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선호하지만 착용스타일로는 통이 좁은 팬츠를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4) 팬츠길이에 대한 선호·착용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팬츠길이의 선호와 착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표 4>에서 살펴보면 다리길이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서만 팬츠길이에 대한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다리길이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표 8>에서 살펴보면 인지도와 만족도 중 다리길이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팬츠길이에 대해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 3>에서 살펴보면 다리길이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7부팬츠 및 롱(long)팬츠에 대한 선호·착용이 동일하게 혹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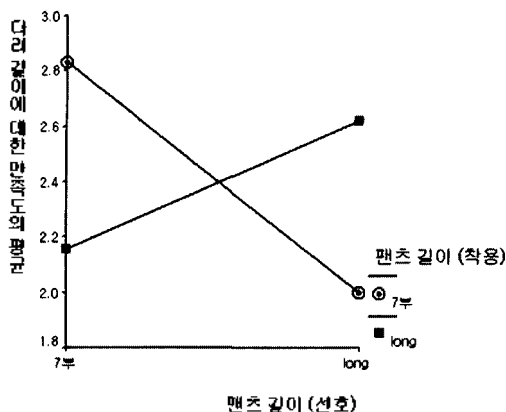
다리길이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팬츠길이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는 다리길이에 대해 모든 경우 평균이하로 만족하였다. 다리길이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 7부 팬츠를 착용하였고, 그 중 다리길이에 더 불만족하면 롱팬츠를 선호하지만 7부 팬츠를 착용하였다. 반면 다리길이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증가한 경우 롱팬츠를 착용하였고, 그 중 다리길이에 더 만족하면 롱팬츠를 선호하였고 착용스타일로도 롱팬츠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부 팬츠를 선호하는 경우 다리길이에 더 불만족하면 7부 팬츠를 선호하지만 롱팬츠를 착용한 반면, 롱팬츠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다리길이에 더 불만족

<표 8> 팬츠길이 선호·착용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Two-Way ANOVA

하반신 부위별 항목		팬츠길이	선 호			착 용			선×착
			M	S.D	F	M	S.D	F	F
인 지 도	다리가 길다	7부	2.67	.82	1.70	2.77	.75	.17	.02
		long	2.91	.95		2.83	.95		
만 족 도	다리길이	7부	2.50	1.01	.55	2.77	.96	.05	6.49**
		long	2.60	1.05		2.51	1.05		

**p<.01, 선×착 :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의 상호작용.



〈그림 3〉 팬츠길이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 따른 다리길이에 대한 만족도 차이.

하면 롱팬츠를 선호하지만 착용스타일로는 7부 팬츠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모든 경우 다리길이에 불만족하였고, 그 중 다리길이에 가장 불만족하면 롱팬츠를 선호하지만 착용스타일로는 7부 팬츠를 선택하였으며, 다리길이에 가장 만족하면 7부 팬츠를 선호하였고 착용스타일로도 7부 팬츠를 선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팬츠형태에 대한 선호·착용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표 4〉에서 살펴보면 종아리굵기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팬츠형태의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9〉에서 종아리굵기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인지도와 만족도 중 종아리굵기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팬츠형태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하였다. 즉, 종아리굵기에 대한 인지도의 평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밀착형(tight), 벨보텀(bell bottoms) 및 일자형(straight)팬츠에 대한 선호와 착용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종아리 굵기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선호와 착용스타일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종아리굵기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 증가한 경우 밀착형 팬츠를 착용하였고, 그 중 종아리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일자형 팬츠를 선호하지만 밀착형 팬츠를 착용하였다. 종아리굵기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감소 경향을 나타내다가 다시 증가한 경우 벨보텀 팬츠를 착용하였고, 그 중 종아리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일자형 팬츠를 선호하지만 벨보텀 팬츠를 착용하였다. 종아리굵기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 감소 추세를 나타낸 경우 일자형 팬츠를 착용하였고, 그 중 종아리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밀착형 팬츠를 선호하지만 일자형 팬츠를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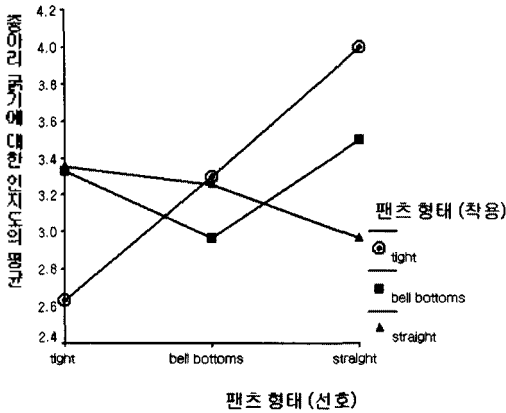
밀착형 팬츠를 선호하는 경우 종아리가 다소 가늘다고 인지하면 밀착형 팬츠를 선호하였고 착용스타일로도 밀착형 팬츠를 선택하였다. 벨보텀 팬츠를 선호하는 경우 종아리가 가장 가늘다고 인지하면 벨

보텀 팬츠를 선택하였다. 벨보텀 팬츠를 선호하는 경우 종아리가 가장 가늘다고 인지하면 벨

〈표 9〉 팬츠형태 선호·착용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Two-Way ANOVA

하반신 부위별 항목	팬츠형태	선 호			착 용			선×착
		M	S.D	F	M	S.D	F	F
인 지 도	Tight	3.02	1.03	.99	2.89	1.09	.17	
	Bell bottoms	3.08	1.02		3.04	1.03		
	Straight	3.04	1.22		3.12	1.11		
만 족 도	Tight	2.48	1.05	.23	2.55	1.05	.27	.96
	Fit	2.48	1.07		2.49	1.05		
	Loose	2.53	1.06		2.48	1.07		

**p<.01, 선×착 :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의 상호작용.



〈그림 4〉 팬츠형태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 따른 종아리 굵기에 대한 인지도 차이.

보텀 팬츠를 선호·착용하였다. 일자형 팬츠를 선호하는 경우 종아리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일자형 팬츠를 선호하지만 밀착형 팬츠를 착용하였다.

따라서 종아리가 가장 가늘다고 인지한 경우 밀착형 팬츠를 선호하였고 착용스타일로도 밀착형 팬츠를 선택하였으며, 종아리가 가장 굵다고 인지한 경우 일자형 팬츠를 선호하지만 착용스타일로는 밀착형 팬츠를 선택하였다.

2) 스커트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른 스커트 스타일별 선호와 착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MANOVA를 수행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스커트 선호·착용스타일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MANOVA

스커트스타일		하반신 인지도 · 하반신 만족도	F
스커트 형태	선호	아랫배가 나왔다 · 아랫배 나온 정도	.92
		허리가 굵다 · 허리둘레	.26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	.75
		힙이 넓다 · 힙너비	1.27
		힙이 나왔다 · 힙 나온 정도	.87
		허벅지가 굵다 · 허벅지굵기	1.45
		종아리가 굵다 · 종아리굵기	1.05
	착용	아랫배가 나왔다 · 아랫배 나온 정도	1.39
		허리가 굵다 · 허리둘레	2.78 *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	1.12
		힙이 넓다 · 힙너비	.55
		힙이 나왔다 · 힙 나온 정도	.96
		허벅지가 굵다 · 허벅지굵기	2.50 *
		종아리가 굵다 · 종아리굵기	1.83
	선×착	아랫배가 나왔다 · 아랫배 나온 정도	.72
		허리가 굵다 · 허리둘레	.67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	.81
		힙이 넓다 · 힙너비	1.01
		힙이 나왔다 · 힙 나온 정도	.99
		허벅지가 굵다 · 허벅지굵기	1.46
		종아리가 굵다 · 종아리굵기	.63

*p<.05, 선×착 :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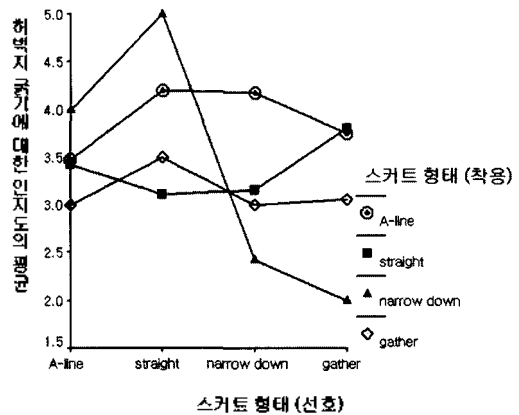
그 결과 스커트형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허리둘레 및 허벅지굵기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스커트형태의 선호와 착용스타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지도, 만족도 각각에 대한 Two-Way ANOVA를 수행한 결과는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1>에서는 인지도와 만족도 중 허리둘레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에 따라서는 스커트형태에 대한 선호와 착용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허벅지굵기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스커트형태에 대한 착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허벅지굵기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스커트형태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허벅지굵기에 대한 인지도의 변화에 따라 어떤 형태의 스커트를 선호하고 착용하는가 하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허벅지 굵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스타일의 스커트를 착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Duncan's test 결과 허벅지굵기에 대한 만족이 평균이하였고, 그 중 허벅지굵기에 가장 불만족하면 A라인(A-line) 스커트를 착용하였고, 이에 비해 허벅지굵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아래로 갈수록 통이 좁아지는(narrow down) 스커트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벅지굵기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났다.

허벅지굵기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경우 A라인 스커트를 착용하였고, 그 중 허벅지가 가장 가늘다고 인지하면 A라인 스커트를 선호·착용하였다. 허벅지 굵기에 대한 인지도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경우 일자형 스커트를 착용하였고, 그 중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개더스커트를 선호하지만 일자형 스커트를 착용하였다. 허벅지굵기에 대한 인지도가 증



<그림 5> 스커트형태 선호와 착용의 상호작용에 따른 허벅지굵기에 대한 인지도 차이.

<표 11> 스커트형태 선호·착용별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한 Two-Way ANOVA

하반신 부위별 항목		스커트형태	선 호			착 용			선×착
			M	S.D	F	M	S.D	F	F
인 지 도	허벅지가 굵다	A-line	3.51	1.01	1.72	3.69 A	1.01	2.56	[Shaded]
		Straight	3.23	1.13		3.24 AB	1.05		
		Narrow down	3.20	1.08		2.67 C	1.05		
		Gather	3.52	.91		3.16 BC	.69		
만 족 도	허벅지굵기	A-line	2.24 AB	1.05	1.37	[Shaded]	[Shaded]	1.19	[Shaded]
		Straight	2.47 AB	1.06		[Shaded]	[Shaded]		
		Narrow down	2.56 A	1.05		[Shaded]	[Shaded]		
		Gather	2.13 B	1.08		[Shaded]	[Shaded]		

* $p<.05$, 선×착 :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의 상호작용.

Duncan's test 결과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집단을 문자로 표시 (A>B>C).

가하다가 급격한 감소 경향을 나타낸 경우 통이 좁아지는 스커트를 착용하였고, 그 중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일자형 스커트를 선호하지만 통이 좁아지는 스커트를 착용하였으며, 이에 비해 허벅지가 가장 가늘다고 인지하면 개더 스커트를 선호하지만 통이 좁아지는 스커트를 착용하였다. 허벅지굵기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한 경우 개더 스커트를 착용하였고, 그 중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일자형 스커트를 선호하지만 개더 스커트를 착용하였다.

A라인 스커트를 선호하는 경우 허벅지굵기에 대한 인지도가 평균 이상이었고, 그 중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A라인 스커트를 선호하지만 통이 좁아지는 스커트를 착용하였다. 일자형 스커트를 선호하는 경우 역시 허벅지굵기에 대한 인지도가 평균 이상이었고, 그 중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일자형 스커트를 선호하지만 통이 좁아지는 스커트를 착용하였다. 통이 좁아지는 스커트를 선호하는 경우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통이 좁아지는 스커트를 선호하지만 A라인 스커트를 착용하였고, 허벅지가 가장 가늘다고 인지하면 통이 좁아지는 스커트를 선호·착용하였다. 개더스커트를 선호하는 경우 허벅지가 가장 가늘다고 인지하면 개더 스커트를 선호하지만 통이 좁아지는 스커트를 착용하였다.

따라서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한 경우 일자형 스커트를 선호하지만 착용스타일로는 통이 좁아지는 스커트를 선택하였으며, 허벅지가 가장 가늘다고 인지한 경우 개더 스커트를 선호하지만 착용스타일로는 통이 좁아지는 스커트를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정장 팬츠와 스커트 부위에 따른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 성인 여성의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 사이에 전반적으로 둘레 및 너비 항목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2. 하반신 인지도와 만족도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둘레 및 너비 항목에서 크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였다.

3. 팬츠에 대한 결과로 팬츠 허리위치에서는 허리둘레에 평균 이하의 만족을 나타내었고, 그 중 허리둘레에 가장 불만족하면 high waist 팬츠를 선호하였으며, 허리가 다소 길다고 인지하면 high waist 팬츠를 착용하였다. 팬츠 힙여유분에서는 힙 나온 정도에 대한 만족이 평균이하였고, 그 중 힙 나온 정도에 가장 불만족하면 힙부위에 약간 여유가 있는 팬츠를 착용하였다. 팬츠통에서는 힙이 다소 넓다고 인지한 경우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착용하였고,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통이 좁은 팬츠를 선호하지만 착용스타일로는 통이 좁아지는 팬츠를 선택하였으며, 종아리굵기에 가장 불만족하면 통이 좁은 팬츠를 선호하지만 착용스타일로는 통이 넓은 팬츠를 선택하였다. 팬츠길이에서는 다리길이에 평균이하의 만족을 나타내었고, 그 중 다리길이에 가장 만족하면 7부 팬츠를 선호하였고 착용스타일로도 7부 팬츠를 선택하였다. 팬츠형태에서는 종아리가 가장 가늘다고 인지하면 밀착형 팬츠를 선호하였고 착용스타일로도 밀착형 팬츠를 선택하였다. 스커트에서는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에 따라 스커트 형태에서만 선호와 착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허벅지굵기에 대한 만족이 평균이하였고, 그 중 허벅지굵기에 가장 불만족하면 A라인 스커트를 착용하였으며, 허벅지가 가장 굵다고 인지하면 일자형 스커트를 선호하지만 통이 좁아지는 스커트를 착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성인여성들은 정장 팬츠 및 스커트를 착용할 때 선호하는 스타일을 실제 착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반신을 커버할 수 있는 스타일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음이 밝혀졌다. 또한 길이 항목보다는 대체로 하반신의 둘레 및 너비 항목에서 크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였으므로, 정장 팬츠와 스커트 착용 시 하반신의 둘레 및 너비를 커버하는데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패턴과 디자인 개발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구양숙, 추태귀 (1996).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

- 학회지 43권 5호.
- 남윤자, 이승희 (2001).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권 4호.
- 박우미, 위은하 (2003). "중년여성의 신체 형태 특징 유형별 기성복 만족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권 3호.
- 위은하, 박우미 (2002). "중년여성의 신체부위 인지 유형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착의의복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27권 9/10호.
- 이경립, 박숙현 (2004).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비교 (제1보): 재킷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2권 1호.
- 이수지, 이인자 (1996). "성인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복식* 30권.
- 이영륜, 강혜완 (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권 2호.
- 이영주 (1998). "슬랙스 제작을 위한 성인 여성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 분석: 30세에서 49세까지". *한국의류학회지* 22권 1호.
- 이영주 (1998). "중년기 여성의 하반신 형태에 따른 인식도와 슬랙스 입체재단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주, 박옥련, 이정옥 (1997). "슬랙스 제작을 위한 20대 여성의 하반신 형태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 분석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2호.
- 이영주, 임숙자 (2001). "체중조절 행동과 의복의 맞춤형 만족도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권 1호.
- 정재은 (1993). "20대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태귀 (2002). "신체만족도에 따른 다차원적 신체이미지와 의복 추구 효용".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권 4호.
- 황진숙 (1997). "신체만족도와 기성복에 대한 만족의 상관관계연구". *복식* 34권.
- 황진숙, 나영주 (1999). "남자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이미지 선호의 관계연구". *복식* 49권.
- Horn, M. J. and Gurel, L. M. (1994).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서울: 까치.
- Kaiser, S. 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 Kefgen, M. and Touchie-Specht, P. (198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4th ed. New York: Macmillan.
- Secord, R. and Jourard, S.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17.